작가가 생산한 것을 따라하거나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말자

삐딱하게, 은밀하게

많은 독서 이론을 살펴보면 우리가 책을 마치 신주 섬기듯, 책에서 지시한 기호를 따라 읽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책에서 제시한 정보, 책이 주는 교훈, 책에서 마련한 미학이란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책은 그저 우리가 탄 차의 운전사일 뿐 경치를 구경하고 판단하고 즐기는 사람은 바로 독자 자신이다.

글_변학수

독서는 단순한 재생산적 행위가 아니다

알베르토 망구엘은《독서의 역사》에서 자신이 경험한 보르헤스 이야기를 들려준다. 보르헤스가 유명 작가들이 남긴 좋지 못한 문장들을 모아 문집을 만들었는데 셰익스피어 또한 여기에 속했다고 한다. 셰익스피어가《햄릿》에서 햄릿이 망령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을 그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자.

망령 : 반응이 빠르구나. 네가 이번 일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넌 망각의 강변에 편안히 뿌리 내린 무성한 잡초보다 더 둔할 것이니라. 자, 햄릿, 들어봐. 정원에서 자는데 독사가 날 물었다고 발표됐다 - 그래서 덴마크 전체가 조작된 내 사망 경위로 새까맣게 속고 있다 - 그러나 귀한 애야 알아둬라, 네 아비의 목숨을 앗아간 그 독사가 지금 왕관을 쓰고 있음을.

햄릿 : 아, 내 영혼이 예측했어! 삼촌이다!

망령 : 그래, 그 상피붙고 간통한 짐승놈이 마력적인 기지로, 반역하는 재주로 - 오, 사악한 기지이며 재주로다, 그렇게 유혹할 힘이 있다니 - 가장 순결해 보이는 내 왕비의 욕망을 얻어냈다, 수치스런 제 욕정을 채우려고.(《햄릿》(제1막 5장), 민음사, 2004, 44~45쪽)

보르헤스 자신이 셰익스피어라면, 아니 여기서 햄릿이라면 그는 적어도 "삼촌이다!"란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뭔가 예감이 들었고 그런 숙부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다면 적어도 '숙부'나 '삼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으리라는 주장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동생이다!"라든가 "어머니의 친족이다!"란 표현이 더 어울렸을 것이라고 본다. 필자라면 아마도 "동생이라는 작자다!"라고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독서는 단순한 재생산적 행위가 아니다. 작가가 생산한 것을 따라한다거나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때 독서의 생명은 끝이 난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불러내어 읽어야 한다.

에스트라다의 말을 빌자면 이런 독서야말로 "가장 세련된 형태의 간통"이 될 지도 모른다. 독서는 텍스트를 새로 바라보고 사실성이 없는 부분은 교정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보완함으로써 비로소 생산적 행위가 된다. 생산적 행위란 생산성이 작동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독서로 인한 카타르시스를 배가한다. 그 이유는 예술은 단지 이런 낯선 것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서할 때 텍스트에서 독자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흐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 독서는 오로지 텍스트와 독자인 나 사이의 상호 역동적인 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 텍스트가 사회적 · 심리적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독자의 이해행위를 동기화할 수 있지만 독자가 그렇다고 하여 그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독서란 은밀한 행위

진정한 독서가란 엄밀한 의미에서 읽을 만한 책을 골라 밀실에서 읽는 자들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입에 침이 고이고 가슴에 물고기가 뛰며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해적선 선장처럼 대상 세계의 이질성을 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독서가라 할 수 없다. 텍스트가 독자와 관계를 맺으려면 친숙하고 알려진 대상 세계에 대항할 나만의 '대상'을 구축해야 한다. 이 대상을 찾는 것은 외부적으로 보면 '은밀한 행위'지만 내적으로 보면 '편력하는 관점'이다. 《홍부전》의 한 대목을 보자.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 접경에 양반 연 생원이 놀부라는 형과 흥부라는 아우, 두 아들을 두었다. 틀림없는 한 어머니의 소생이로되 어질고 어리석음이 아주 다르니, 흥부는 착하고 효도하고 우애가 독실하지만, 놀부는 뱃속이 잘못되어 부모께 불효하고 동기간에 우애가 없어 마음 쓰는 것이 괴상망측하였다.

이 소설을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과 '국어 시간에 소설읽기'처럼 읽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주체-객체-관계를 정해주고 그 어느 특정한 의미 속으로 빠져들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내면적 독자는 텍스트와 맺는 이런 관계 자체를 거부한다.

이 텍스트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독자가 자신 삶의 기억을 불러와야 한다. 그리고 '놀부'가 얼마나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에, 또는 부모들이 놀부보다 흥부를 얼마나 귀애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데 관점을 옮겨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흥부의 관점 또한 같은 독자에게 마찬가지로 주체-객체-관계를 이룬다는 점이다. 편력하는 독자는 어느 한 편만을 들지 않기 때문이다. 형수에게 주걱으로 뺨을 맞은 흥부가 "아주머님, 뺨을 쳐도 먹여가며 치시니 고마운 말을 어찌 다 하오리까. 수고스럽지만 이 뺨마저 쳐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개연성을 잃은 표현이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의 진정성이 없어진다. 이야기가 진지하지 못하므로 나만의 새로운 '대상'을 구축하는 데 실패하고 만다.

이렇게 볼 때 독서란 은밀한 행위다. 은밀한 행위란 누가 보지 않는 데서 행동하는 일체의 것을 말한다. 한번은 아들에게 〈스쿨 오브 락〉이란 영화를 DVD로 주고선 같이 보자고 했더니 "아빠 좀 나가 주실래요?" 하는 것 아닌가? 별로 야한 것이 없는 데도 말이다. 나는 잠시 영화와 독서의 은밀한 내적 행위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책을 읽는 행위는 내적이고 은밀한 행위다. '국어시간에 소설읽기' 같은 제목은 마치 나 같은 특정한 세대가 겪은 '수업시간에 만화읽기' 같은 느낌을 준다. 오로지 책임감 때문에 참석한 교회 설교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도 파스칼의 《팡세》를 펴놓고 읽었다고 한다.

훔쳐 먹는 재미를 당신은 아는가? 나 또한 사회적 책무 때문에 밝힐 수 없는 곳에서 밝힐 수 없는 책을 읽었던 시간이 많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목사가 화엄경을 읽고 스님이 모세오경을 읽으며 신부가 소녀경에 빠지는 것이 어찌 독서의 세계에서 용납되지 않는단 말인가?

변학수 님은 경북대학교 독어교육학과와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교수이다. 저서로 《통합적 문학치료》 《문화로 읽는 영화의 즐거움》 《낯선 문학의 해석학적 미학적 경험》 등이 있다.